

## 최인혁 목사, “예수님 믿는 삶, 불편도 감수하는 것”



미주 CBS 창립 3주년 기념 유튜브 방송 개국 기념 최인혁 콘서트가 12일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렸다. ©기독일보

미주 CBS 창립 3주년 기념 유튜브 방송 개국 기념 최인혁 목사 콘서트 'Just for you'가 12일 오후 7시 30분에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최인혁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바람,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등 8곡의 찬양을 부르며 찬양 주제에 맞는 간증을 했다. 또한 러빙위십의 찬양과 메시지가 이어졌다.

최인혁 목사는 “저는 진짜 단순하다. 제가 받은 복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다. 예배당에서만 믿지 않고, 바깥에서도 믿는다. 머리로 판단해서 믿으면 이미 늦는다. 시험이 들어오면 머리로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오면 그냥 행하면 된다. 계산이 오면 이미 끝난 것”이라면서 “저는 사람들에게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잘 모르겠다’ 하면 지옥이다. 왜냐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이다. ‘천국에 갈

지 안 갈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옥간다는 것이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고 천국이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에서 상 주시는 분이요. 천국의 상은 이 땅에서 행함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다.

“제가 중학생 때 한국 인구가 3,000만 명이었는데, 1,450만 명이 교회에 출석했다. 지금 인구가 5,000만 명이 넘는데 교회 출석 인구가 400만 명이라고 한다. 3/4의 개신교인이 없어졌다. 그중에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 한다. 행함으로 구원 받을 수 없다. 이것은 틀림없이 맞는 것이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그것만큼 강조해야 할 것을 버려 버렸다. 복음서 주제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의 삶’이다. 중함 하면 주님은 ‘착하게 사셨다’이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동적으로 흘러 나오는 빛이다”라고 했다.

그는 “세상이 교회를 보고,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한다. ‘교회를 보니 더 많이 싸우네. 우리보다 더 작은 문제로 싸우네. 저 아줌마 우리 동네에서 욕심 많기로 소문났는데 교회 권사래. 인사 안 받아주기로 소문난 저 아저씨 교회 장로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은 끝이다”라면서 “착하지 않으면 구원을 전할 수 없다. 착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착하지 않으면 구원을 논할 수 없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세상보다 착해야 한다.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저는 25세에 헌신했고, 그날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불편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선택한

## 美 전역 학부모들, 금식기도회 개최 “아이들 건드리지 마세요”



기도 집회에 참석한 '그녀의 목소리 운동'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er Voice Movement

미국의 크리스천 부모들이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50개 주에서 나라를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한 기도 집회를 개최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부모의 권리를 수호하는 비영리단체 '그녀의 목소리 운동'(Her Voice Movement)이 주최한 '우리 아이들을 건드리지 마세요'#DontMessWithOurKids) 집회가 지난 13일 오후 전국 각 주 의사당에서 진행됐다.

이 집회의 목적은 “미국 전역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며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문화 및 모든 영역의 변화를 위해 2~10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기도팀을 세워 나가는 이 단체는 “미국의 Z세대 젊은이 5명 중 1명은 스스로를 성소수자라고 밝히고 있다. 또 낙태가 여전히 합법인 주들이 있고, 일부는 만삭까지 가능하다”며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 운동'의 제시카 젠트리(Jessica Gentry) 사무총장은 CP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정치 집회라기보다 기도 집회 또는 기도 모임이며, 성경적 가치에 부합한다”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다는 것과, 전통적 가족 단위는 성경적 원칙을 따라야 함을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립학교 환경에서 조장되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 ‘그만하면 충분하다’는 메시지가 집회를 통해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자녀들이 대명사와 이름을 바꾸고 싶어하는데, 그것이 숨겨져 있을 때 부모는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위험에 맞서는 방법이 바로 기도집회”라고 설명했다. →4면에서 계속

불편을 하나님이 높이셨고, 하나님이 박수치시더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불편하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예수님 믿는 삶은 덜 갖고 불편하기로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결단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 CCM의 1세대, CCM계의 작은 거인이라 불리는 최인혁 목사는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예수전도단 간사 및 찬양 인도자의 길을 걸어왔다. 월드비전의 친선대사로 활동했으며, 현재 CBS JOY4U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고 있다. 토마스 멩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내막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4년 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거지 막사에서 드린 목사님의 기도, 28년 지나 응답돼”

## 〈영화 같은 이야기〉 고봉준 목사 간증 집회 예수 믿기 전 삶은 짐승, 인간 이하의 삶

“저희 아버지가 68세 때, 어머니가 43세 때, 12명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학교를 그만두고 뱃사람 식모로 일하다, 17살에 상경해 쌀집 배달, 공장, 식당 설거지, 타일 보조공, 기와 공장 보조공, 양아치, 옷, 양말 행사, 노숙자, 거지생활, 노상강도, 폭력배 안 해본 일이 없다.”

“어느날 예배당에 끌려 가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때 감사 목사님 말씀이 소리가 아니라 불로 느껴졌다. 그때, 전국 교도소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겠다고 기도했고, 그 기도대로 됐다.”

저서 〈영화 같은 이야기〉, 사마리아 교정 선교회 대표목사, 교도소 집회 25년간 1,500번이 넘는 설교, 국내외 부흥회와 간증집회로 잘 알려진 고봉준 목사의 LA 지역 부흥회가 지난 4월 10일(수) 샘커뮤니티교회(샘신 목사)를 시작으로, 14일(주일) 주백성교회(김성규 목사)와 웨스트교회(진건호 목사)에서 진행되었다.

고봉준 목사는 이번 집회 설교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세계관, 가치관이 변한다”며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삶에 나타난 변화를 간증했다.

12명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중학교 때 아버지를 여의고 험난한 삶을 살았다면서도,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복된 길은 열린다. 주일성수, 기도, 봉사, 전도와 선교, 십일조와 감사 생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빗나가는 법이 없다”고 간증했다.

“저는 97년도부터 자비량으로 생선장사를 하면서 교도소 사역을 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는 훈련을 시키신다”고 했다.

그는 재소자 사역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과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아니다.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짐승 같은 삶, 인간 이하의 삶이었다. 하나님이 없으니, 마귀가 제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저를 낳고 83세에 돌아가셨다. 중학교 중퇴를 하고 고기잡이 배에 식모로 취업했다. 17살에 서울에 올라왔다. 구두닦이를 하다 나에게 친한 사람들이 없을까 친구를 찾다가 교도소에 들어갔다. 그 방에서 예배를 드렸다. 긴급조치 9호, 김대중 대통령, 김지하 시인, 서울대학교 정외과 4학년 학생들이 그 안에 있었다. 그때 사형수가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감사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오면 여전히 같은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37년전 오산리 기도원 대성전 밑 지하 성전에서 회개 안 하려 버티다가 주님을 만났지만 말씀이 없으니 방향은 계속되었다. 꽃게잡이 배를 탔고, 자살 시도도 두 차례 했다. 그는 그 기간을,



책 〈영화 같은 이야기〉의 저자 고봉준 목사(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남부지방회 소속 목사가 LA에서 특별 간증집회를 인도했다. ©기독교일보

“모든 문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일부러 두신 장애물이다. 장애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해석했다.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직장이 없고 가정이 없었다. 그러다 어떤 생활까지 했냐면 거지생활을 했다. 거지 막사에서 넘마주이를 하며 살았다. 그 생활을 하면서 너무 외로워서 25살 때, 넘마주의와 살아줄 여자가 어디 있겠는가? 술집 아가씨를 데리고 도망갔다. 거지 막사에 데려가서 83년 11월 25일에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바라보는데 흡수저 중에서도 흡수저로 태어난 아들이 불쌍했다. 영락교회 부목사님에게 돌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드렸다. 비 오면 비가 세는, 쓰레기 더미 속에 지은 거지 막사에 그분이 오셔서 평평 울

며 기도하시며 예배를 드려주셨다. 3개월 동안 씻기지도 못한 아이를 위해 기도하셨다. 그 목사님이 빈 평화와 복이 28년 후 응답되었다.”

그는 아이를 호적에 올리지 못해 입양을 보냈고, 부랑자의 삶은 계속되었다며,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 22살 때 예수님 앞에 서원했는데, 그 생각이 계속 났다. 30대가 넘어 기도원에 와서 3일동안 기도하는데 불가항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임했다. 거지 막사 앞에 있는 교회에 매일 가서 새벽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거지 근성을 뽑아내려고 13년 동안 생선 장사를 하게 하시고 광야 훈련을 시키셨다”고 말했다.

2011년 3월 아내가 그가 입양을 보낸 아이가 아버지를 찾는다

는 전보를 내밀었다.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28년만에 편지가 왔다. ‘사진한 장과 제가 쓴 책을 동봉합니다. 아버지를 찾았다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는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행복한 아들 Nicholas Daniel Hartlep, 고모일 드림.’ 고모일은 내가 지어준 이름이었다.”

28년 만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쓸 내용이라고는 ‘용서해라’ 밖에 쓸 말이 없다. 미네아폴리스에 도착해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아들과 3일을 같이 보내며, 양부, 장인 장모를 모두 만났다. 또, 한국에 온 아들은 돌 예배 때 안수기도해 준 목사님에게 다시 안수기도를 받았고 한국 교도소에서 설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도 지켜 보았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그는 험한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두번째 기회를 주셨고 그는 목회자가 되었다. 그는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고봉준 목사는 돌 예배 때 목사님이 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들이 쓴 책이 29권이다. 아들은 2006년 위노라 주립대를 수석 졸업, 2012년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밀워키 캠퍼스 수석 졸업, 메트로 폴리탄 주립대학, 켄터키 주립대학 베레아 칼리지의 로버트 찰스 장학관의 석좌교수 겸 교육학과장을 역임하고 있다.”

주디 한 기자

## 미드웨스턴, 석학 초청 온라인 컨퍼런스

미드웨스턴 한국부가 신약학 박사과정(PhD in New Testament) 개설을 기념, 영국 더럼 대학의 라이트 풋 신약학 석좌교수인 존 바클레이 교수를 초청해 ‘주의 만찬과 그 가장 중요한 의미’(The Lord's Supper and the Lion's Share)라는 주제로 4월 25일 오전 8-10시(미국 중부시간)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바클레이 교수는 바울 연구에 관하여 가장 저명한 학자로 현재 영국 신약학회(British New Testament Society)의 회장이며 세계적인 학술지인 New Testament Studies의 편집장을 역임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바울 신학을 은혜신학의 관점



에서 새롭게 해석한 『바울과 선물: 사도 바울의 은혜 개념 연구』 등이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미나 신청하기 링크([https://us06web.zoom.us/webinar/register/WN\\_9mNafTrWSE-ChxRf\\_MLzxQ](https://us06web.zoom.us/webinar/register/WN_9mNafTrWSE-ChxRf_MLzxQ))에 가서 신청해야 참석할 수 있다.

## 무료 안검사 받으세요

국제의료구호단체 비전케어 미주서부(VCS West·이사장 서영석)가 오는 4월 20일(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LA 한인타운내 LA 총영사관 주차장에서 ‘LA 사랑의 아이캠프’를 연다.

한인들은 연령대 상관없이 이날 행사장을 방문하면 무료 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백내장 질환이 심각한 저소득층 또는 무보험자 한인에게는 무료 백내장 수술을 제공한다. 오픈뱅크와 LA 총영사관, 재외동포청에서 후원하는 이날 행사에는 리사 황 안과전문의, 에드워드 이 안과전문의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직접 검사를 진행한다.



비전케어 미주서부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한인 커뮤니티 내 무보험자와 저소득층 한인들을 위해 무료로 안검사 및 백내장 수술을 진행해 왔다. 예약: 213-545-6071/213-215-3420 [vcswest@gmail.com](mailto:vcswest@gmail.com)

# 제29회 미주 대한신학대학 졸업 및 학위 수여식

대신 교단 설립 63주년 기념식  
미주대한신학대학교 교단 직영 신학 승격 기념식  
제4회 평양(Che Syun) 신학대학졸업 및 학위 수여식

- 일 시 : 2024년 5월 15일(수) 오후 4시
- 장 소 : 벨엘 장로교회  
857 So. La Brea Bl, Los Angeles, CA 90036
- 설 교 : 이 은규 총장(제6대 안양대학 총장, 현 미주 대한신학대학 총장)
- 초청인 : 미주 대한신학대학 총장 이 은규 박사  
미주 대한신학대학 재단이사장 류 당열 목사  
명예 총장 이 의완 박사



이 은규 총장



# 국가 기도의 날, “말씀을 들어 세상을 밝히소서”

제 73회 국가기도의날이 5월 2일(목) 오후 7시,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에서 개최된다.

이번 국가기도회는 “Lift up the Word, Light up the World”, “말씀을 받들어 올려 세상을 밝히소서”(삼하 22:29-31)라는 주제로 미 전역 4만 7천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기도회에서는 미국의 회개와 부흥을 시작으로 미국의 대통령과 정치인, 법조인들, 행정 관리, 군 지도자와 공무원들을 위해, 미국의 청교도 신앙 회복과 부흥, 전쟁 중인 나라들과 전쟁의 종식, 반성경적 가치관에 물든 미국의 당면한 현안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예정이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는 미국이 당면한 영적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남가주 한인교회들과 단체들의 국가 기도의 날 참석을 독려했다. 이를 위해 또한 4월 28일(일) 주간을 기도의 날로 선포해서



제 73회 국가기도의날이 5월 2일 오후 7시, 나성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된다. ©기독일보

전 교회에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마 강순영 목사는 “한인 커뮤니티의 기도회가 굉장히 뜨거워서 내셔널 주최 측에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금년에도 각 도시에서 열리는데 미국과 전세계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도회는 1부 예배와 2부 기도회로 진행되며, 1부 예배는 국육권 목사(중현선교회)의 사회,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가 기도,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가 설교를 맡았다. 2부 기도회는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김은목 목사(평화교회), 양경선 목사(샘물교회), 박세현 목사(예수로교회), 유

수연 사모(ABC교육구 교육위원), 이수호 목사(올림픽장로교회), 크리스틴 정(사우스랜드교회), 강순영 목사(JAMA), 최영봉 목사(남가주교협 회장), 김재권 장로(미주성시화 이사장), 고태형 목사(선한목자교회), 손창민 목사(에브리데이교회), 이상명 총장(미주장신대), 오윤태 목사(순무브먼트), 김

철민 장로(CMF가정선교원), 안현숙 목사(CBS중보기도팀장), 김기동 목사(세리토스총만교회), 최금옥 권사(남가주동신교회), 샘신 목사(샘커뮤니티교회) 등이 기도를 인도한다.

한편 미국 국가 기도의 날은 1863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제안하고, 1952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절 의회가 공동 결의해 트루먼 대통령이 공동 결의안에 서명함으로써 제정됐다.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전통으로 지켜져 오고 있으며, 1988년 레이건 대통령이 5월 첫 번째 목요일을 기도의 날로 정한 이래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가적 기도회다.

무신론자들에게 소송을 당해 2010년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2011년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으며 적극적으로 부활했다. 당시 위헌 판결 후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해, 이 행사가 미국 정치권에서 갖고 있는 위상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토마스 맹 기자

## “코로나 이후 교회가 온전히 회복된 게 아니다”



김한오 목사(베델교회) ©bkc.org

얼마 전 영국 목회자, 선교사 콘퍼런스에 다녀온 김한오 목사(베델교회)는 크리스천들이 팬데믹 시대의 교훈을 잊고 있다며, “교회가 데믹 이전으로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4월 14일 주일예배에서 <주여, 우리를 고치소서>(역대하 7:13-16)를 주제로 설교한 김 목사는 영국 목회자 컨퍼런스 강사로 영국에 다녀오면서, 유명한 교회가 술집이 되고 디스코 장이 되었다는 들으며, 이것이 곧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국 장로교는 스코틀랜드의 장

로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영국에 신앙의 빛을 크게 쬐다. 그런데 그 예배당이 술집, 바가 되었다. 몇 십년 후에 우리 베델교회 건물을 가리키면서, ‘이게 옛날에 교회였는데 술집으로 바뀌었어, 실내 스케이트장이 되었어.’ 그것을 상상해 보라. 그 말도 안되는 일을 눈으로 보고 왔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라며, 우리는 전염병을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사인이다. 팬데믹 때 예배를 못 드린다는 행정명령을 받고 역사의 전무후무한 경험을 했던 때, 제가 이런 칼럼을 썼다. ‘예배당

문이 닫혔는데, 주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닫은 거라면서.’ 그때 배운 교훈이 크다. 벌써 잊어버리는 게 아닐까. 예배 당에 너무 오고 싶어서 주차장에 와서 셀폰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랬던 기억이 옛 그제이다. 10년전이 아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염병을 주셨다.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실 때가 있다. 갑자기 잘되던 일이 실패하고, 잘 걸어가다 넘어지고, 잘 못 가고, 그게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그는 “코로나 이후 우리가 온전히 회복된 게 아닌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코로나 이전에 더 많이 모였다. 아직 회복이 안 되었다. 교회가 줄고 있다. 한인교회도 8백 개 교회가 문을 닫았고, 매년 미국에서 1500 개 교회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19세기 말 웨일즈의 영적인 상황과 그 상황을 뒤집은 이반 로버츠의 기도에 대해 나눴다.

“1904년에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다. 그 당시 이 부흥이 일어나던 당시 상황이 회의론적이고 무신론적 책들이 신학교에서 판을 치고 주일학교에서 성경의 영감과 무오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속죄

## 청소년을 위한 진학 전략 세미나 4/27

엘바인온누리교회  
크리스찬  
청소년들을 위한  
진학 전략 세미나  
2024년 4월 27일(토요일) 오후 2시  
엘바인온누리교회 드림홀

Speaker: Martin Walsh (통역 제공)  
Stanford University 부임학처장  
Chicago University 입학 사정위원회 Advisor  
San Francisco The Harker 고등학교 수석 진학 Counselor  
아이비리그 및 스탠퍼드, MIT 포함 수백명 합격 실적 보유

<강의 주제>  
합격 트렌드 분석, SAT/ACT 시험 준비 전략, 키워드 분석, 에세이 등

신청

크리스찬 청소년들을 위한 진학 전략 세미나가 2024년 4월 27일(토요일) 오후 2시에 엘바인온누리교회 드림홀에서 열린다.

전 스탠포드 대학 입학처장, 현 시카고 대학 입학 사정위원회 어드바이저, 현 San Francisco The Harker 고등학교 수석 진학 카운슬러(아이비리

그 및 스탠퍼드, MIT 포함 수백명 합격 실적 보유)인 마틴 월쉬(Martin Walsh)가 ‘합격 트렌드 분석’, ‘SAT/ACT 시험 준비 전략’, ‘키워드 분석’, ‘에세이’ 등에 대해 강의한다. 통역이 제공된다.

신청은 엘바인온누리교회 홈페이지(<https://irv.onnuri.or.kr/>)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를 부정하는 일들이 웨일즈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면서 교회의 생명력이 급감하고,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1890년에서 1900년, 10년 사이에 만 2천 여명의 성도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때 이반 로버츠

(Evan Roberts)라는 20대 젊은이가 ‘나를 굴복시키소서’라고 기도했고 엄청난 부흥을 체험하게 된다.” 김 목사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영국교회처럼 될 날이 머지 않다”며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선 기자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스프링 대세일 Spring Big Event

**0%** APR Financing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48Months)

**NEW 2024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4 HYUNDAI Tucson Hybrid SEL Convenience AWD**

**NEW 2024 HYUNDAI Kona SEL**

**NEW 2024 HYUNDAI Santa Fe Limited**

**Lease Special**  
NEW 2024 HYUNDAI Ioniq 5 SE RWD  
NEW 2024 HYUNDAI Ioniq 6 SE RWD  
\$10,000 Lease Cash Availabl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will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 건강한 사역자와 사역지를 찾아서 7

# 믿음의 축복을 나누는 예은교회 광견섭 목사

## 할아버지의 신앙의 유산 5대째 이어져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개척한 예은교회

예은교회 광견섭牧사는 경북 영양, 일월산 아래서 자랐다. 선교사의 전도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할아버지는 원래 독실한 불자였다. 절의 살림살이를 거의 책임지다시피 했다. 그러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선교사의 권면으로 예수를 믿었다. 그 후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으며 교회당을 세웠다.

할아버지는 지역과 가문의 선각자 역할을 했다. 보수적인 경상도 지역에서 선교 초창기에 예수를 믿었고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 주었다. 할아버지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은 광견섭 목사의 부모님(곽병기 장로, 김노미 권사)은 한층 더 헌신된 모습으로 고향 교회를 섬겼다. 교회만 잘 섬김이 아니라 믿음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살았다. 곽병기 장로의 기도로 자녀 6남매가 모두 목사, 사모, 장로, 그리고 권사로 성장했고, 사위들도 목사와 장로다.

부모님 신앙을 이어받은 광 목사 형제들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고 있다. 얼마 전 고등학교 교장으로 은퇴한 장형 광만영 장로는 교직에서도 은퇴하고 장로직에서도 은퇴한 은퇴 장로이지만 늦게 입문한 문학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며 고향과 모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있다.

광 견섭 목사의 누님과 매형도 신실한 신앙인이다. 교장직과 장로직을 은퇴한 매형은 인생의 후반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다.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즐기며 이곳 저곳에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 동생 광성섭 장로는 미국으로 건너와 사업을 한다. 광성섭 장로는 예은 교회 시무 장로다. 건실한 비즈니스를 하는 광 장로는 선교와 교회 섬김에 앞장서는 예은교회 기동이다.

광견섭 목사 가문이 믿음의 복을 받은 증거는 형제들 뿐만 아니

라 다음 세대도 건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광 목사의 세 딸, 그레이스(은혜), 유진(글로리아), 그리고 은진(샤론)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광 목사 사역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의 세 딸도 그렇지만 조카들도 모두 신실한 신앙인이다. 광 목사 가문은 5대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다.

광견섭 목사는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다. 총신대학교에서 종교음악을 공부하며 신학과 과목도 수강했다. 원래 종교음악학과에 입학할 때부터 목회자를 꿈꾸었다. 그 시절 교회 음악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큰 힘이 된다. 대학을 졸업하고 입대를 했다. 군인 교회에서 신학대학에서 종교음악을 전공한 그는 쓰임이 많았다. 군종병으로 목사님을 보좌하며 교회를 섬겼다.

전역하며 신대원을 준비하는데 학교는 교단분규로 혼란스러웠다. 학교와 교단의 분열로 갈등하던 시기에 한 자매를 만났다.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해 간호사가 된 자매는 미국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이미 이민하였고 좋은 결혼 상대를 찾는 중이었다. 여러 가지 통하는 부분이 많아 교제하며 결혼하게 되었고 미국으로 건너왔다.

광 목사는 총신대학 신대원 재학 중 도미해 Reformed Presbyterian Seminary (M.Div) 졸업후 Bethany Theological Seminary(Ph.D)에서 공부했다. 1985년 목사안수 후 일신장로교회에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섬겼다. 1991년 12월 1일 일곱 명이 모여 선교의 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다. 그 후 광 목사는 선교사로 나갈 생각을 하다가 다시 예은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나 교회의 중요한 비전이 선교였다. 요즘 선교학자들이 말하는 선교적 교회를 개척한 것이다. 예은교회는 지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광견섭 목사(맨 뒷줄 왼쪽 끝)는 선교의 꿈을 품고 예은교회를 개척해, 매년 선교지를 방문해 사역자를 양육하고 선교지를 돕고 있다. © 예은교회

금까지 그 선교의 열정과 비전을 유지하고 있다.

광 목사는 1992년부터 선교했다. 코로나 이전까지 1년에 두 번씩 선교지를 방문했다. 수십 년간 선교하며 사역자를 양육하고 있다. 선교가 쉽지 않지만,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가 되어 버렸고, 선교지 현장도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선교지를 외면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처럼 광견섭 목사도 선교지의 요청을 외면할 수가 없다.

광견섭 목사는 선교 중에 많은 위로와 축복을 누린다. 기적적으로 선교비를 채워 주시고, 공안에 잡히는 등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경험한다. 현지 사역자를 양육해서

든든한 사역자로 세우는 일이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보람이요 기쁨이다.

예은교회 성도들과 선교 동역자들의 협력과 응원도 선교의 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예은교회 성도들은 광 목사의 선교 열정을 100% 이해하고 협력한다. 그들의 동역이 없었다면 지속적 선교 사역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울러 선교지와 한국에서 선교에 협력하는 선교 동역자들의 변함없는 후원과 동참에 늘 감사한다.

예은교회를 섬기는 광 목사는 행복한 목사다. 그는 늘 자신의 행복한 목회에 감사한다. 예은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지만 아등바등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심을 감사하는 광 목사는 늘 섬기

고 나누려 한다. 믿음의 가문을 이룬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의 삶과 형제와 광 목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나눔과 섬김이 정답이라는 것을 체득했고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행복한 목회자 광 목사는 감사 제목이 많다. 목회에 큰 갈등이 없다는 것이나 사역의 보람이 감사 제목이다. 평강이 넘치는 예은교회를 인해 감사한다. 광 목사는 요즘 은퇴를 위해 기도한다. 목회를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모든 목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범사에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는다.

강태광 기자(WorldShare USA 대표)

### →1면 기사 <美 전역 학부모들...>에 이어서

실제로 이번 집회는 미 전역의 수백 개 교육구에서 트랜스젠더 또는 넌바이너리(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별)로 인식하고자 하는 자녀의 욕구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허용하거나 조인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뤄졌다.

젠트리리는 “기독교인들이 이 땅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숨어서 건물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열심을 내고 거리로, 공공장소로 나가 성경적 가치를 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사가 역사적인 모임의 추진력을 구축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지난 7월부터 집회를 계획해 왔으며,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금식할 뿐만 아니라 의를 옹호하고, 지역 차원에서 참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 레몬법 전문

Proverbs 31:8 Law

## 잠언 로펌

Proverbs318Law.com



- ▶ 한인사회 한인들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립니다.
- ▶ 워런티(Warranty) 보증기간이 남은 새차, 리스차, 중고차
- ▶ 반복적인 문제로 새차교환 현금보상해 드립니다.
- ▶ 자동차 딜러샵 최고 1~2회 이상 수리한 사실

변호사 비용은 100% 무료!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변호사비용 전액 부담)

**새차 리스차 중고차**  
팩토리(Factory) 워런티를  
갖고있는 차

브레이크, 변속기, 엔진, 에어컨, 깨진 유리창,  
파손된 후방 카메라, 오일 누수, 냄새, 소리,  
타이어, 대시보드(Dashboard) 화면 등  
**1회 이상 수리한 사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David Lee 변호사**  
6940 Beach Blvd. Suite D-606, Buena Park, CA 90621

**무료  
상담**

**(213)210-3651**  
Dlee@proverbs318law.com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 센터메디컬그룹 오픈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 2024년 4월 25일 (목) 오후 1시 샷건 California Country Club

1509 Workman Mill Rd, Whittier, CA 90601

**참가비** \$150 \*참가비는 이웃을 섬기는 따뜻한 기금으로 사용되며, 참가자 성함으로 100% 전액 기부됩니다.

**참가인원** 120명 한정 (점심 도시락&디너 스테이크 식사 제공)

**참가대상** 만 64세 이상 시니어

**상 품** 행운의 홀인원 첫 주인공 \$10,000 현금 지급  
젬텍보석 다이아목걸이  
아시아나 LA-한국 왕복 항공권  
플라리스 피코웨이 레이저 \$1,200 상당  
올림픽골프 골프 상품권, 골프용품  
포크벨트 천연가족벨트  
동원F&B 산삼배양근  
조삼원 녹용홍삼  
크리스탈스파 이용권  
청운부페 \$50 식사권  
헬씨랜드 성인병 건강 영양 의학

\* 상품 목록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가문의** (714) 904-1701  
(월~금 오전 8시반~오후 5시반)

**주최/주관** 센터메디컬그룹

**후원** GEM TECH ASIANA AIRLINES Pol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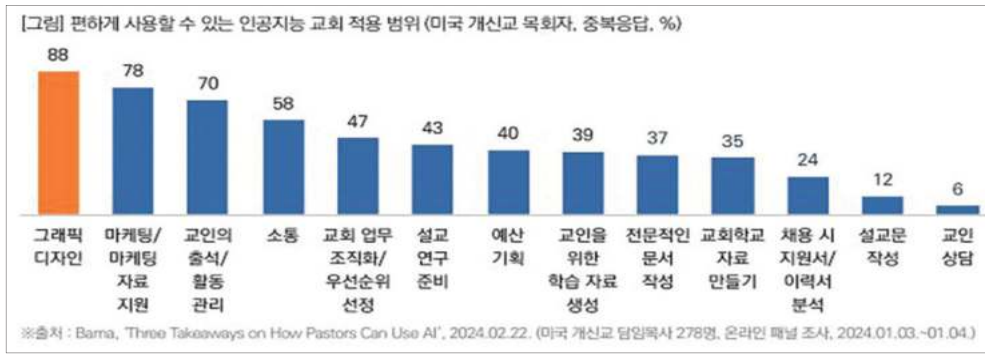
OLYMPIC GOLF 포크벨트 Dongwon 동원F&B

조삼원 CRISTAL SPA 청운 헬씨랜드 Since 1985





# 목회에 활용 가능한 AI 분야와 그 한계는?



시간문제일 뿐, Chat GTP로 대변되는 인공지능(AI) 기술은 교회 안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 이하 목데연)가 최근 국내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그 한계와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조사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 감정은 호기심(81%), 기대감(77%) 등 비교적 긍정적 감정이 높았다. 의심스러움(60%), 두려움(58%) 등 부정적 인식도 존재했다.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비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61%)이 컸다.

인공지능 시대 최우선으로 대비해야 할 문제는 인간 노동력 대체(32%)라고 답했다. 해킹문제(20%), 인공지능의 물리적 위험 가능성

(17%)이 라는 답변도 있었다. 경제활동자 10명 중 8명은 ‘인공지능이 나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직업별로는 판매/영업/서비스, 사무/관리/전문직을 예상했다.

어떤 직업을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잘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할까. ‘컴퓨터 프로그래머’ 78%, ‘자산관리사’ 73%, ‘판사’ 53% 등 대체로 데이터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논리적인 판단이 중시되는 직업군을 꼽았다.

반면 ‘유치원 교사’ 81%, ‘영화감독’ 79%, ‘작가’ 71%, 등 주로 창의적, 돌봄 및 공감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은 인간이 더 잘 수행할 것으로 본다 고 답했다. 목회자는 53%가 인간이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30%만이 AI에 힘을 실어줬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기술이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지난

해 10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개신교인의 미디어 이용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 ‘도움이 된다’(14%)는 인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37%)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출석 교회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정도는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가 56%로 절반 이상이었고, AI기술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필요하지 않은 기술’이므로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29%,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교회에 도입하는 것은 반대한다’ 22%로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올해 2월 미국 바나(Barna)연구소가 개신교 담임목사 278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교회 적용 범위를 묻은 결과 10명 중 9명(88%)은 ‘그래픽 디자인’, 78%가 ‘마케팅/마케팅 자료 지원’을 꼽았다.

이어 교인의 출석/활동 관리 70%, 소통 58%, 교회 업무 조직화/우선순위 선정 47%, 설교 연구 준

비 43%, 예산 기획 40%, 교인을 위한 학습자료 생성 39% 등으로 답했다.

반면 ‘설교문 작성(12%)’과 ‘교인 상담(6%)’ 등 영적이고 관계적인 용도로는 인공지능 사용을 경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데연은 “인공지능 기술의 교회 적용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인공지능 기반 번역 도구는 다양한 언어로 예배와 설교를 제공함으로써 선교 활동의 영역을 넓힐 수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예배와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기획에 도움받거나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신앙생활 패턴을 분석하여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등 개인 신앙을 위한 최적화 환경을 제공하여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밝혔다.

본격적 인공지능 시대에 한국교회가 주지해야 할 요소에 대해 첫 번째로 “정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출처 미상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정보를 생성하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하고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특히 기독교 핵심 교리를 왜곡하는 이단적인 사상, 불건전한 신학 콘텐츠가 더 많은 빅데이터의 특성상, 근본적 사고와 분별력이 없이 인공지능 서비스에 의존할 경우 성경적 진리에서 멀어지고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둘째로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영적 영역을 보완해야 한다”며 “설교나 기도문을 작성하는데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는다면, 반드시 자신의 언어로 내면화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편리함과 효율성이 오히려 진정한 소통과 공동체성을 약화할 수 있다. 교회는 인간적인 교류와 영적 교감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데연은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은 교회 안에서 일상화될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술이 신앙을 위한 목적이 아닌 수단임을 기억하고, 문명의 이기로서 적극 활용은 하되 보조적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사랑과 헌신의 기독교적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송경호 기자

## 김양재 목사, “남편의 병원 건물, 미혼모 시설로”

우리들교회의 김양재 목사가 남편이 남기고 간 산부인과병원 건물을 교회에 헌납했다.

김양재 목사는 지난 7일 ‘네게 갚으리라 내 마음을 돌이켜서(왕하 9:23-29)’를 제목으로 한 설교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고, 15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남편이 낙태 수술을 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마음 한 편에 있었다. 열악한 환경 등을 이유로 낙태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도와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생각에 건물을 기부하게 됐다”며 “나라의 근간은 가정이고 가정의 근간은 한 생명이다. 나라와 가정, 생명을 위해 희생하는 교회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기부한 건물은 경기 광명시의 한 상업지구 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는 사회복지재단 ‘한사람’을 만들어 이 건물을 기부받은 뒤, 한부모 가정을 위한 시설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 목사는 당시 설교에서 “제 남편은 긴박한 시간에 회개를 했다. 1980년 당시 ‘무자식 상팔자’, ‘한 자녀 낳아 잘 기르자’며 산부인과는 가족계획 지정 병원으로 온 나라가 낙태 권고를 하던 때였다”며 “장로님 아들이었던 남편은 괴로워한 것 같다. 남편은 하늘나라로 갔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기에, 하나님이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살려주시지 않아도 할 말이 없다며 회개했다. 그 짧은 시간에 회개한 사람의 변화를 보여주셨다. 수많은 사람이 남편의 간증으로 주님을 만났다”며 “회개한 남편의 죄, 낙태의 죄, 그 생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 죄책감이 늘 마음 한편에 생기기 시작했다. 부부는 한 몸이다. 남편의 죄는 아내의 죄이기도 하다. 네게 갚으리라 하셨다. 제가 갚아야 하는데 적용이 쉽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아는데, 저만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매일 회개를 하는데 죄값을

어떻게 할지 잊어버리고 싶었다”고 했다.

김 목사는 “이 나라가 창조질서를 파괴하려 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인본 죄악이 가득 차 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 시대의 악한 물결은 거침없이 몰려들어서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 아이가 생기면 죄책감 없이 낙태하고, 이혼을 너무 쉽게 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가 됐다”며 “이런 배경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매주 차별금지법, 창조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법, 낙태 문제 등에 대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을 100% 해야 한다고 하신다. 가정 중수가 목적이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정말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 원치 않는 임신이라도 잉태된 아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버리지 않고 키워낼 수 있도록 돕고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우리들교회 유튜브 스크린 샷

자 하는 복지재단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운동이 일어나길 소원하는데, 그래서 저부터 적용하려 한다. 모두가 회개에 동참하길 바란다. 생명 사역을 위해 남편이 남기고 간, 병원 건물을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교회에 헌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병원 개업 전부터 ‘전도할 수 있는, 영혼 구원하는 병원 되게 해달라’고 100일 금식 기도하고 병원을 개업했는데, 주님은 정말 오래 전 사십몇 년 전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주셔서 감격 하신다”며 “

내가 부족해도 사람들에게 줄 것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것이 죄책감의 장소였지만, 회개의 장소가 된 건물이다. 제 영혼 구원 사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건물이고, 목요일마다 큐티 모임이 시작된 건물이고, 남편이 천국 간 이후 제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위해 까마귀가 되었던 건물을, 이제 이 땅에서 버려지고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과 부모들을 위해 주님께 남김없이 온전히 드리길 소원한다”고 했다. 김신의 기자



# 부고

## 만남의교회 교회장



임근남 원로장로

한평생 만남의교회를 사랑으로 섬겨오신 임근남 원로장로(향년 75세)께서 2024년 3월 26일(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기에 삼가 부고하며 장례예식을 만남의교회 교회장으로 아래와 같이 거행합니다.

〈천국환송예배〉

일 시 : 2024년 4월 20일(토) 오전 11시  
 장 소 : 만남의교회 본당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집 레 : 이정현 목사(만남의교회 담임목사)  
 장 지 : Hollywood Forest Lawn (6300 Forest Lawn Dr., Los Angeles, CA 90068)  
 연락처 : 818-882-9191





#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2024년 대박



### 100% Made in USA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 ITC :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PPA의 경우)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사용자 Outlet Free

Lic#854389



BTS Solar Design Inc. T. 213-500-8000



# ADU 전문

## 리|모|델|링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Water  
Damage



##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K-Urban Builders In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 “AI 시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물질과 쾌락 아닌, 한 생명 향한 관심”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 ©youngnak.com

레위기의 제사법에 대한 말씀을, 크리스천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번 주일 4월 14일 나성영락교회 본당에서 드려진 주일예배에서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목사는 “생명을 다하는 정결” (레위기 12장 6-8절)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제사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며,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나누었다.

박 목사는 캄보디아에서 40여년 전 난민으로 미국에 망명과 캘리포니아 실 비치에서 30년 동안 도넛 가게 ‘도넛 시티’를 운영했던 존 찬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의 사연을 통해, 크리스천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설교를 시작했다.

“존 찬(Chan)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아내 스틸라와 함께 캘리포니아 실 비치(Seal Beach)에서 30년 넘게 도넛 시티를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날 아내가 뇌동맥류로 갑자기 쓰러졌다. 감사하게도 조금 나아져서 재활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우리가 도넛을 빨리 사버리면 남편 존이 집에 가서 아내를 돌보고 아내와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하고 4시 반에 문을 열면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 도넛을 사갔다. 보통 새벽 2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문을 닫았는데 8시 반쯤에 도넛이 다 팔려 달을 수 있게 되었다.”

“한 5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작은 도시, 작은 가게,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짧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그는, 오늘의 시대에 대해, 사람들이 ‘시대 정신이 없다’고 한다며, “단 한 가지 명확한 것이라면, 시대 정신은 없지만 자기 물질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이기주의는 있다고 말한다. 이기주의가 시대정신이 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자기 만족과 이기주의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기주의만 남은 시대가 되었다. 자기 이익과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정보가 가속되고 활성화된다. AI 인공지능, 또 로봇 기술, 미디어, 가상 현실, 이런 것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위한 도구가 되고 있다. 테라사 수녀가 생전에 한 말 가운데 ‘미국에 기근이 있는데 음식의 기근이 아니라, 사랑의 기근, 돌봄의 기근, 진리의 기근, 그리고 생명의 기근이 있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풍족하고 부유해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물질과 쾌락이 아니다. 한 생명에 대한 관심과 기대, 사랑으로 돌보는 마음과 손길로 우리가 살아간다.”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는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난기류를 만나 사막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며칠 후에 사막에서 발견돼 구조됐다. 기자가, ‘식량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사막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라고 물었는데, 그 답이 ‘저를 사막에서 버티게 해 준 것은, 사막에서 살 수 있게 해 준 것은 한 덩이의 빵도, 한 모금의 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무엇인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제대로 혼자 살아가지 않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다. 그래서 그 생명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주신 것이다. 그 안에서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의 관심 속에서 사는 것이다. 서로를 돌보는 마음과 손길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홀로 남겨져 있다면 신앙의 호흡을 할 수 있겠는가? 못 견디고 그 영이 죽게 된다. 그래서 공동체, 가정과 교회에는 생명에 대한 관심과 손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유는 아버지, 어머니의 섬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교회에서 내가 신앙의 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

문이다.” 그는 이 생명에 대한 관심을 레위기의 정결법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설명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하나는 제사법이고, 다른 하나는 정결법이다. 이 정결법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 정결법, 첫 그 시작이 식생활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길 원하는 백성이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거나 누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먹어도 될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여 주셨다.”

“왜 정결법을 주셔서 구별하게 하시는다? 생명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생명이라고 하면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을 건강히 유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당시 기후를 보면 도저히 음식을 오래 놔둘 수 없는 기후였다. 쉽게 부패한다. 돼지를 키워서 그 고기를 살균 없이 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다. 병균이 옮겨져서 전염이 되면 한 사람의 육적인 건강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종족과 부족과 민족이 다 함께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활 환경이 더러운 짐승들, 그런 식물들, 그런 생물들의 섭취를 금하셨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당시의 종교 풍습을 보면, 이방 민족들은 우상을 숭배했다. 우상에게 음식을 바치고 제사를 마치면 그것 함께 나눠 먹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의 교제가 일어났다. 우리가 누구랑 음식을 먹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누구랑 식생활을 하느냐가 내 실제적인 생활을 결정한다. 누구가 어울리느냐, 누구랑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는가가 삶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의 죄악된 문화, 타락한 그 생활을 차단하셨다.”

“그래서 먹을 음식을 정해 주신 것이다. 육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 생명 유지를 위해서 가장 우선 식생활의 정결을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일에 항상 절제와 분별이 있어야 한다. 내가 음식을 먹고 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에 맞는 생활인가 점검해야 한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번째 정결법, 산모 정결법에 대해 설명하며, 영적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2장에 이어지는 두 번째 정결에 대한 말씀은 산모, 막 출산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다. 12장 말씀은 새로운 생명과 그 생명을 낳은 여인, 그들이 속한 그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

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잘 보면 이 말씀은 산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 공동체 모두가 이것을 알고 함께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생명을 살기를 원한다. 생명을 살아가길 찾는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젖을 찾듯 영적인 생명도 그렇다. 저는 나성 영락교회가 영적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한다. 우리에게 왔는데 ‘내가 이리다 죽겠다’고 느끼고 메말라진다면 나성 영락은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교회에 들어온 생명이, ‘아, 살만하다, 내 영이 이곳에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

“산모가 아들을 낳을 때와 딸을 낳을 때 격리 기간이 다르다. 낳아는 40일 여하는 두 배인 80일의 정결 기간을 갖게 하신다. 첫 번째 성경적인 이유는 하와가 아담 먼저 범죄하고 그를 범죄로 이끄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의 정결 시간이 더 길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그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면 남아선호사상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나면 환영할 만한 일이었던 반면 딸이 태어나면 환영받지 못하고 산모는 그 시간을 견뎌내야 했다. 외롭고 괴로운 시간이었기에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다.”

“말씀 안에는 생명과 공동체를 생각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담겨 있다. 철저히 그 생명을 낳은 그 산모를 생각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격리 기간을 지나면 산모는 변제와 속죄제를 드렸다. 속죄제는 죄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변제는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산모가 변제를 먼저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병에 관한 규례를 통해 죄로부터 회복에는 오랜 회개와 죄사함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병에 걸리면 완전히 공동체로부터 격리된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의 병을 진단할 때 판별할 때 신중을 가하라고 하신다. 병이 치유되면 정결 예식을 다 하고 갖가지 제사를 다 드려야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다. 거룩함을 상실한 후에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랜 회개와 죄사함의 기간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 주셨다. 병에 걸리기는 쉬워도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공동체로 이곳에 들어온 이들이라면 우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사실 없어야 되고 영적으로 정제되거나 메마름을 갈증을 경험하는 이들도 없어야 한다. 또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도 없어야 한다. 나성 영학 교회가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김민선 기자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sup>TH</sup>) • MYP(6<sup>TH</sup>~10<sup>TH</sup>) • DP(11<sup>TH</sup>~12<sup>TH</sup>)

“아!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 영 성인 55% 낙태 합법화 반대



©pixabay.com

영국인 다수는 낙태를 비범죄화하려는 국회의원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화이트스톤인사이드'(Whitestone Insight)가 최근 2,011명의 영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55%는 낙태가 현행대로 임신 24주 이후에는 불법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16%만이 현 상태를 바꾸는 것을 지지했다.

여성은 남성보다 낙태가 불법으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 (57% 대 54%), 4분의 3 이상(71%)은 32주에서 34주 사이에 아기를 낙태한 여성에게 1년 징역형을 내리는 것은 합당하거나 너무 짧다고 답했다.

이 계획은 내무위원회 노동위원장 다이애나 존슨(Diana Johnson)이 밝힌 형사사법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으며, 개정안에는 "법적 기한인 24주를 초과해 임신을 중단한 여성을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CT에 따르면, 토리당 캐롤라인 안셀(Caroline Ansell) 의원의 수정안은 낙태 제한을 22주로 낮추는 것을 제안한다. '영국 생명권'(Right To Life UK)의

캐서린 로빈슨(Catherine Robinson) 대변인은 "존슨 의원이 제안한 법안의 극단적인 변화는 여성이 임신 9개월 동안 스스로 낙태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재의 법률을 제거할 것"이라며 "이는 건강한 아기가 성별 선택 목적 등 어떤 이유로든 출생 직전까지 낙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집에서 이뤄지는 말기 낙태로 인해 목숨을 잃는 태아의 수가 비극적으로 증가하고, 더 많은 여성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낙태법은 영국에서 설 자리가 없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중이 이 법의 변화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우리는 의원들에게 존슨의 수정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대다수의 대중이 낙태에 대한 법적 기한을 낮추는 것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반타프레스(SavantaComRes)의 과거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기간 제한은 1990년에 극미숙아의 생존율 향상으로 인해 28주에서 24주로 낮아졌을 때 마지막으로 변경됐다. 강혜진 기자

# 영 성공회 대주교, 서안 지구 기독교인 여성 체포 우려 표명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한 기독교인 여성을 체포한 후 영국 성공회 지도자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이 여성은 이스라엘이 불법으로 간주하는 한 학생단체와 연관돼 구금된 바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비르zeit(Birzeit)에 있는 성베드로 성공회교회(St. Peter's Anglican Church) 신도인 라얀 나시르(23)는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자택에서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

저스틴 웹비 영국 성공회 대주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시르의 체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그녀의 안전과 조속한 석방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촉구했다. 웹비 대주교는 X에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았고 깊은 우려를 느꼈다"라며 "팔레스타인 기독교인 형제자매들과 함께 라얀과 그녀의 가족, 그리고 점령된 서안지구에 있는 성베드로 성공회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라얀의 안전과 조속한 석방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다.

처치타임스(Church Times)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체션(Christopher Chessun) 주교 역시 그녀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세인트 조지 칼리지'(St. George College)의 리처드 세웰(Richard Sewell) 학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안지구의 비르zeit에 있는 우리 교회의 한 성도가 이스라엘군에 의해 체포됐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나시르의 시련은 이스라엘군이 오전 4시 그녀의 집을 방문해 그녀를 구금하면서 시작됐다. 그녀의 가족들은 "그들은 체포 영장이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나시르가 이스라엘의 데이먼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17일까지 그녀의 행방을 몰랐다"고 했다. 청원 사이트 체인지닷오알지(Change.org)에 따르면, 나시르는 최근 비르zeit대학교(Birzeit University)에서 영양학 학위를 취득했으며, 라말라 인근의 팔레스타인 NGO에 고용돼 있었다. 그녀는

2021년 20명이 넘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이스라엘군에 의해 재판도 없이 몇 달 동안 구금됐으며 학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가족은 가디언지와 인터뷰에서 그녀가 2020년 이스라엘이 범죄로 규정한 좌파 학생단체인 '진보민주당 학생극'(Progressive Democratic Student Pole, PDSP)의 일원이라는 혐의로 당시 구금됐다고 말했다.

미들이스트아이(Middle East Eye)에 따르면, PDSP는 세속적인 팔레스타인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인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LO)과 연결돼 있다. 이 단체는 이스라엘 군 명령에 따라 불법 단체로 선언된 바 있다. 여성 10명을 포함한 그녀의 친구들 중 일부는 1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녀는 보석금을 내고 두 달 만에 석방됐다.

팔레스타인 인권 변호사이자 나시르의 사촌인 탈라 나시르(Tala Nasir)는 "이스라엘은 학생회가 캠퍼스 밖의 조직과 제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가자지구 전쟁 중 구호 활동가 여러 명이 사망한 후, 웹비 대주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을 거듭 촉구했다.

이스라엘은 2007년부터 가자지구를 장악해 온 테러단체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해 대부분 민간인 1,200명이 사망한 이후 공세를 시작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인 240명 이상을 납치했으며, 이스라엘의 목표는 인질을 석방하고 하마스를 근절하는 것이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 보건부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자지구에서 33,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투원과 생존자를 구분하지 않은 수치다.

많은 인권 운동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휴전을 촉구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섬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평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내세대에 오전 9:15)  
3부예배(바자세대에)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회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gan 교차)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생애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C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CMC소방방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C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요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삼위일체와 최우의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아)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경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오전 10:55  
수요일예배 오후 7:30(온라인)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김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3412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4952 / www.joohy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예배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화요기도회 오전 10: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7:00

**김상현 담임목사**

**한인필그림교회**

2518 W. Grand Ave. Alhambra, CA 91801  
T. (626)570-1610 (교회), (714)853-4030(담임목사)

주일 오전 10:00 허튼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549-9191 / F. (818)549-9199 / choonhyun.org

##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om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전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최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오렌지카운티 지역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8: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nchome.org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소재: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00(월-토)

**감사한인교회**

예수인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창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장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생명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명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감은교회 세계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평일학교부서)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혜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 LA 동부 지역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ord)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명 (행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 美 대학생 복음집회 여전히 성황 애즈베리 부흥 불씨 이어가



2024년 4월 3일 미국 조지아주 아테네의 스테이건 콜리세움에서 열린 '유나이티드 US'(Unite US) 복음 집회에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참석했다. ©Tonya Prewett

지난해 미국의 대학에서 시작된 대학생 부흥 집회 운동이 여전히 다른 대학들로 확산되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10일 보도했다.

대학생 복음화 단체인 '유나이티드 US'(Unite US)는 2023년 9월 12일, 앨라배마주 오번대학교(Auburn University)에서 열린 부흥 집회를 시작으로 여러 대학에서 대규모 학생 모임을 조직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플로리다 주립대학교(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열린 행사에서 약 300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지난달에는 앨라배마 대학교(University of Alabama)에서 약 260명의 청년들이 세례를 받았다. 지난주, 유나이티드 US는 조지아 대학교(University of Georgia) 인근의 스테이건 콜리세움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당시 현장에는 전통적인 세례 장소가 부족하여, 약 150명이 픽업트럭의 짐칸에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나이티드 US는 오는 5월 1일 테네시주 녹스빌에 위치한 톰슨 볼링 아레나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집회는 인근의 테네시 대학교(University of Tennessee)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체의 설립자인 토냐 프레웨트(Tonya Prewett)는 CP의 인터뷰에서 "이 운동은 하나님께서 대학생들을 멘토링하고 그들의 고통, 불안 및 우울에 대해 듣고 난 후에 주신 비전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프레웨트는 작년부터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한 무대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비전을 갖고 있었다"며 "지역 목회자들

과 사역 지도자들을 만나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지도자들이 비전에 동참했고 약 6주 만에 유나이티드 오번(Unite Auburn)이 열렸다. 행사에는 약 5,000명의 학생들이 참석했고, 그날 밤 약 200명이 세례를 받았다"면서 "그 이후로 우리는 플로리다, 앨라배마, 조지아 대학교를 방문했다"고 했다. 그는 유나이티드 US가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학생들에 대한 후속 관리에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조지아 대학교에서 열린 행사에서 "세례를 받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두 얻을 수 있었다"면서 "각 학생에게 후속 조치를 취하고, 해당 지역의 모든 교회와 캠퍼스 사역 목록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조지아 대학신문인 레드앤블랙(The Red & Black)에 따르면, 조지아 행사에서는 텍사스주 와코의 해리스 크릭 침례교회 목사인 조너선 포클루다와 성경 교사 겸 작가인 제니 앨런이 설교했다.

포클루다 목사는 7일 CP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학생들이 "식당을 찾고 밤늦게 술을 마시는, 주변에 머무는 평범한 신앙에 지쳐 있다"면서 "(대학 캠퍼스에서) 부흥의 조짐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포클루다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신앙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그들은 단지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데 관심이 있다. 밤늦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한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 美 아이다호 주지사 "성별은 남녀만 존재" 법안 서명

미국 아이다호 주지사가 인간의 성별은 남녀 두 가지로만 구분된다고 선언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브래드 리틀(Brad Little) 아이다호 주지사는 하원법안 421(HB 421)에 서명했다. 지난 2월, 이 법안은 공화당이 우세한 하원에서 54 대 14로 승인되었으며, 이달 10일 상원에서도 26 대 8로 통과되었다.

하원법안 421은 아이다호 주법을 수정하여 '성(sex)'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며, 남성과 여성 두 가지의 성별만 있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이 법안에 포함된 문구는 "아이다호 주의 편찬된 법률, 규칙 및 정책"에 모두 적용된다. 또한 이 법안은 '성'을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의 개인의 생물학적 성별"로 정의한다. 이는 남성을 "발달상 또는 유전적 이상이나 역사적 사고를 제외하고는, 어느 시점에 수정을 위한 정자를 생산, 운반 및 활용하는 생식 체계를 가지고 있거나, 가졌거나, 가질 예정인 개인"으로 정의한다.

마찬가지로, 여성을 "발달상 또는 유전적 이상이나 역사적 사고를 제외하고는, 어느 시점에 수정을 위한 난자를 생산, 운반 및 활용하는 생식 체계를 가지고 있거나, 가졌거나 가질 예정인 개인"으로 규정한다. 또한 법안은 '소년'을 '미성년인 남성(minor human male), '아버지'를 '남성 부모'(male parent)로 규정하며, '소녀'를 '미성년인 여성(minor human female), '어머니'를 '여성 부모'(female parent)로 정의한다.

이 법안은 '성별(Gender)'이 남성, 여성 또는 남성과 여성 간의 자연적인 차이

를 지칭할 경우 '성'의 동의로 간주한다. 그러나 '성 정체성'(gender identity, '성별에 대한 내적 감각'(internal sense of gender), '경험되는 성별'(experienced gender), '성별 표현'(gender expression) 또는 '성 역할'(gender role) 등은 동의어로 보지 않는다.

법안은 성에 대한 기존의 정의인 "불변하는 생물학 및 생리학 특성, 특히 임신 시 유전적으로 결정되며, 출생 시 대체로 인식 가능한 염색체, 내부 및 외부 생식 기관에 따라 결정되는 남성 또는 여성 개인"을 새로운 정의로 삼았다.

이 법안은 "두 성별 간의 법적 평등이 성별이 서로 동일하거나, 모든 면에서 똑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성별 간의 신체적 차이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된 별도의 시설, 주거 또는 숙박 시설 또는 체육팀, 프로그램 또는 리그는 법에 따라 불평등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 간의 신체적 차이는 영구적이며, 두 성별은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생물학적 성별 결정론이 성소수자(LGBT) 공동체로부터 적대적으로 여겨지는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을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논바이너리'(non-binary, 남녀를 벗어난 성별) 또는 다양한 성 정체성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작년에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있는 세인트필립스칼리지(St. Philip's College)의 한 교수가 성별이 개인의 염색체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 후 해고되는 사건이 있었다.

김유진 기자



# 美 UMC 총회 도중 '성소수자 목회자' 간부회 열린다



2019년 2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UMC 총회 특별 세션에서 LGBT 지지자들이 참여한 구역에서 시위하고 있다. ©UMC 제공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총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교단 입장 변화를 지지하는 성소수자 목회자들로 구성된 비공식 회의가 열린 예정이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UMC 퀴어 목회자 간부회'(United Methodist Queer Clergy Caucus, UMQCC)로 알려진 이 단체는 오는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소재 샬럿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UMC 총회 참석을 알렸다. UMQCC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회원들은 "UMC에서 목회자로 부르심과 위임 및 안수를 받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간성으로 인식된 이들"로 구성돼 있다.

현재 UMC 장정은 동성애자 성직 안수 및 동성결혼 축복을 금지하며, "동성애는 기독교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UMC 총감독회 회장인 토마스 비커튼(Thomas Bickerton) 감독은 CP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총회에서도 비슷한 회의가 있었다"며 "규율 변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 활동을 하는 조직된 간부회의가 있었다. 그들은 행사를 조직했고,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조직을 지지하기 위해 싸웠다"고 말했다.

그는 "장정의 변화를 지지하는 UMC 은퇴목회자협회나 주류 UMC 교회 등, 기술적으로 간부회가 아닐지라도 온갖 종류의 모임들이 형성돼 있다"며 "누구나 어떤 이슈에 있어서 변화를 지지할

수 있고, 총회에 제출된 청원서의 대부분은 일부 이슈들에 대한 일종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간부회 자체는 장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동성애 지지에 대한 제한은 연회와 총회 기관의 자금 지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UMC 구조에 속하지 않은 다양한 그룹이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지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비커튼은 장정의 613항을 언급했는데, 해당 장정은 "UMC 총회재무행정협의회는 어떤 연회 이사회, 기관, 위원회, 전권위원회나 협의회도 동성애자 간부회나 그룹에 UMC 기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UMC는 동성애자 성직 안수와 동성 결함 축복을 금지하는 장정을 변경할지 여부를 놓고 분열적인 논쟁에 휩싸였다. 비록 총회 장정을 바꾸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실패했지만, 교단 내 많은 진보적 지도자들은 장정을 따르거나 집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해 왔다. 계속되는 논쟁 끝에 2019년부터 약 7,500개의 교회가 UMC를 떠났다. 보수적인 출판기관인 '굿뉴스'(Good News)도 교단을 떠날 계획이다.

UMC 장로인 굿뉴스 롭 렌프로(Rob Renfro) 회장은 지난 2월 CP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다가오는 총회가 마지막 총회가 될 것이다. 굿뉴스는 UMC의 정책이나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 "성경이 삶을 변화시켜" 미국 Z세대, 1년 전보다 4% 늘어

최근 여론 조사에서 미국인의 상당수가 성경에 무관심하지만, 성경이 삶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 청년층의 비율은 지난해보다 증가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미국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는 지난 11일 『미국 성경 현황 보고서』(State of the Bible USA 2024)의 첫 번째 장, '오늘날 미국에서의 성경'을 발표했다. 이 장은 미국 내 성경 사용 및 기의 빈도와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여 표본을 추출했다.

이 설문 조사는 올해 1월 4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성인 25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성경의 메시지가 내 삶을 변화시켰다'는 데 동의하는지 묻자 응답자의 58%는 '다소' 또는 '강력히' 동의했는데, 이는 2023년(57%)에 비해 약간 증가했다. 1965년에서 1980년 사이에 태어난 X세대 성인 중, 2023년과 2024년에 성경이 자신의 삶에 미친 변화에 대해 '다소' 또는 '강력히' 동의한 비율은 전체 인구의 수치와 일치했다. 1997년 이후 출생한 Z세대의 경우, 성경을 삶의 변화의 원천으로 꼽은 비율이 2023년 50%에서 2024년 54%로 증가했다.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성경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믿는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세대이다. 올해 베이비붐 세대의 69%가 성경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했으며, 이는 작년(64%)보다 5%나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2023년 50%에서 올해 48%로 감소했다. 이 세대는 또한 2023년에 비해 올해 들어 '성경을 덜 자

주 읽는다'(12%)고 응답한 유일한 세대였다. 이 세대의 응답자 중 11%만이 작년보다 성경을 더 읽는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15%는 지난 1년 동안 '성경 읽기가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10%는 그 반대라고 답했다. 그중 Z세대는 응답자의 2배 이상(21%)이 지난 1년 동안 성경을 더 자주 읽는다고 답했는데, 이는 성경 독서량이 줄었다는 응답자(9%)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올해 베이비붐 세대와 1946년 이전 출생자의 16%, 그리고 X세대의 15%가 작년보다 성경 읽기가 늘었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최고령 성인의 10%와 X세대의 9%는 성경 읽기가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4년에 성경 사용자의 비율과 숫자는 모두 감소했으며, 이는 성경 현황 보고서 역사상 최저 수준에 이른다. 보고서는 성경 사용자를 교회 예배 이외에도 매년 최소 세 번 이상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2024년에 성경 사용자 수는 9,900만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성경 사용자 비율도 사상 최저 수준인 38%로 하락했다. 지난 1년 동안 '성경 참여자'(Scripture Engaged)로 분류된 미국인의 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성경 참여자 수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4700만 명으로, 2020년의 7100만 명과 비교해 상당히 줄었다. 특히 Z세대 성인 중 11%, 밀레니얼 세대 중 12%로, X세대(21%) 및 최고령층(24%)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Z세대(61%)와 밀레니얼 성인(65%) 대부분은 '성경 무관심'(Bible Disengaged) 범주에 속했다. 반면, X세대(58%) 및 최고령층(49%)의 경우 '성경 무관심'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김유진 기자

주일에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화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 5: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가) 새벽예배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광일(월-금) 06: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후 12:30 EM 오후 12:30 사랑부 오전 11:00

JCCC Academy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입니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초등부 오전 11:00

종교동부(가)예배 오전 11:00 영아부예배(만음제)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Youth 금요일(금) 오후 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전 10:30 사랑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주일 2부 9:30AM/11:15AM 주일 3부 11:15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중고등부 9:30AM/11:15AM 수요기도회 7:30PM 새벽예배 월-토 5:30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가) 새벽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 오전 9:00 EM예배 (2부) 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월요일 오전 8:00 주일 2부 새벽 11:00 주일 3부 새벽 1:30 금요일(가)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314 Riata St., Northridge, CA 91327, (818)833-5887

OC예배 오후 7:30 새가족 등록 오전 5:30 / 토 오전 8:00(200M)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최혁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ol.org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 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목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은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리쉬) 주일예배 3부 오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7: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3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7:00 E.lkc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6985 W Sahara Ave, Las Vegas, NV 89117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정공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주일낮예배 오전 11:00(교회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fho@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이병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 동시통역) 화요일예배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박은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gounchurch.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inex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비츠펠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신비의 침술, 놀라운 속담**

Youtube에서 **김용석** 원장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치료사례를 보실수 있습니다.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무극 보양탕을 체험해 보십시오.  
LA 323.733.8814 OC 714.522.8818

김용석 한의원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junimedia@gmail.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가득...  
이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찜쌀 오방떡, 솔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 기억력 개선
- 피로 회복
- 혈액순환 개선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작용

5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을 함유 \$8.80  
D3 5000 IU 선샤인 비타민 D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캡슐을 함유 \$11.99  
당신의 건강과 부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르는데 기여하여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 6.25 당시 전북 지역 기독교 희생자 104명 공식 확인



전남 영광 염산교회 순교기념비. 6.25 전쟁 당시 77명의 신자들이 북한 공산군에 의해 순교당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이하 진실화해위)는 1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76차 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사건①'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와 관련 부처 등에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사건'은 6.25 전후 인민군, 지방좌익,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기독교(개신교), 천주교, 천도교, 유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인들이 전국 광범위한 지역에서 희생된 사건을 가리킨다.

진실화해위는 6.25 전후 전국적으로 기독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인들이 희생된 사실을 파악하고, 전체적 맥락에서 희생의 원인과 성격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22년 5월 24일부터 직권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들은 종교연합, 종교별 교단과 교회 등을 통해 종교인 희생자 약 1,700명의 명단을 파악했으며, '6·25사건 피살자명부' 등의 공적 자료와 교회·교단 등의 역사 기록을 추가로 수집해 희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진실화해위는 그 첫 번째로 전북 지역에서 희생된 기독교인 104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전북지역 기독교인 희생사건'은 1950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에 걸쳐 발생했으며, 인민군 퇴각기인

1950년 9월 28일 무렵 전체 진실규명 대상자(104명)의 57.7%(60명)가 희생됐다고 발표했다.

희생자들 중 남성이 76.9%(80명)이며, 연령은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으나 40대 희생자가 26%(27명)로 가장 많았다.

교회 직급으로는 교인이 54명(51.9%)으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집사 23명, 장로 15명, 목사와 전도사 각 6명이었다.

이들이 희생된 원인은 기독교인들의 우익활동, 월남 기독교인 등의 이유로 적대세력이 기독교를 좌익에 비협조적 세력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또 예배당 사용문제를 놓고 기독교와 인민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기독교가 미국 선교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친미 세력'으로 여겨져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됐다.

희생자 중에는 대한민국 1호 변호사 홍재기, 제헌국회의원 백형남·윤석구 등 지역 내 주요 인사와 김성원·김중환·김주현·안덕윤·이재규·임종현 목사와 전도사 등이 포함됐다.

전북 지역 희생자 104명 중 가장 많은 희생자가 확인된 지역은 군산으로 희생자의 26.9%(28명)를 차지했고, 김제(23명), 정읍(1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군산 지역에서는 신관교회, 원당교회, 해성교회에서 희생자 28명을 확인했다. 이들은 옥구군 미면 토굴 3곳에서 인민군 후퇴시기(1950년 9월 27-28일)에 집단 희생됐다.

김제 지역에서는 23명의 희생자를 확인했다. 가장 희생자가 많은 곳은 만경교회로, 인민군 후퇴기에 만경분주소 우물과 전주형무소에서 희생된 9명을 진실규명 결정했다. 이 외에 광활교회, 대창교회, 대송교회 교인들도 희생됐다.

정읍 지역에서는 두암교회, 정읍제일교회, 매계교회에서 희생자 17명을 확인했다. 두암교회 희생자들은 빨치산에게 우익인사의 가족과 같은 교회 교인이라는 이유로 집단 희생당했다. 빨치산은 교회와 교인 집을 방화하고, 불길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을 죽창 등으로 찔러 아이부터 노인까지 20여 명을 살해했다.

이 외에 완주 지역에서는 교회 5곳에서 9명, 고창 지역에서는 덕암교회와 고창읍교회 2곳에서 12명, 익산 지역에서는 황등교회, 신황등교회, 대장교회, 동련교회, 무형교회에서 12명의 희생자를 확인했다. 또 전주중앙교회 2명, 임실 관촌장로교회 1명의 기독교인 희생자를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북한 정권의 사과 촉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과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조치, 평화·인권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진실규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한 한국전쟁 시기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사건을 종교별·지역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대웅 기자

## 가정의 달을 앞둔 남가주의 이모저모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남가주 한인교회들은 가족과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계획했다.

충현선교교회(국윤권 목사)는 4/20(토) 오전 8시~오후 1시 그리피스 공원에서 전교인 하이킹을 한다. 참가신청: chmc91.com

LA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는 4/21(주일) 1부와 2부 예배 후 비전센터 앞에서 가족사진 촬영을 진행한다. 5/4(토) 오전 10시에는 호프센터 주차장에서 어린이 날 행사를 연다. 또한 5/15(수)까지 영광장학생을 모집한다. 신청문의는 이메일(admin@gloryla.org)로 받는다.

동부사랑의교회(우영화 목사)는 4/27(토) 오전 8시 30분~오후 3시까지 요바 지역 공원(Yorba Regional Park)에서 온가족 피크닉을 진행한다. 또한 <부모코칭 클래스>를 4/18~5/23까지(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정은주 교수(월드미션대학교 상담코칭 교수, 국제인증코치)를 초청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문의: 박종권 집사(714-797-5592), 송인걸 목사(267-372-9566)

오렌지카운티 제일 장로교회(김종규 목사)가 4/26(금)~ 4/28(주일)까지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담임, 현 KAPC 총회장)를 초청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2022년도 충현선교교회 전교인 하이킹 기념 사진. © chmc91.com

라는 주제로 부흥회를 개최한다. 금-토: 저녁 7:30, 토 새벽 6:00, 주일 1부: 오전 7:45 / 2, 3부 연합: 9:30

얼바인은누리교회는 4/27(토) 오후 2시 진학 전문 카운슬러 마틴 월쉬(Martin Walsh)를 초청해 진학 전략 세미나를 드림홀에서 진행한다. 4/28(주일) 오후 1:10에는 윌리엄 R 메이슨 리저널 공원에서 젊은 부부를 대상으로 피크닉을 연다.

은혜한인교회(한기총 목사)는 5/4(토)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야기부터 5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어린이 날 행사를 연다. 또, 5/16(목)~19(주일)까지 이수훈 목사를 초청해 창립기념 부흥성회를 <새 일을 하시니라>라는 주제로 연다. 5/19(주일) 3부예배 때 교회 창립 42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이 있다.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는

5/19(주일)까지 장학생을 모집한다. 기독교 학생(대학생 이상)이 대상이며 웹사이트(youngnak-scholarship.org)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info@youngnak-scholarship.org, scholarship@youngnak.com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는 5/10,17(금) 오후 7:30과 5/11,18(토) 오전 10시 분당에서 <행복한 가정 세우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좋은나눔성품학교 대표 이영숙 박사가 강사로 선다.

ANC 온누리교회(김태형 목사)는 5/31까지 장학생을 모집한다. ▲크리스천 학생 대상 장학금 ▲일반 장학금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 장학금 등이 있으며 금액은 1,500~2,000달러이다. 신청은 장학위원회 웹사이트(www.ancsf.us)를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문의: acsfug@gmail.com



### 사설

## 두 의사의 '선한 영향력' 이 그림다

의·정 갈등으로 빚어진 의료공백사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평생 병자를 치료하고 가난한 약자를 돕는 일에 헌신한 두 의사의 삶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제52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과 석류장을 각각 수여하고 로제타 홀 선교사와 고 박상은 안양샘병원 미션원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두 의사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으로 한국의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란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이룩한 의료적 업적 못지않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두 사람 모두 일생을 가난하고 병든 이웃과 약자를 돌보는 선교적 삶에 투신했다는 점이다.

1865년 미국에서 출생한 로제타 홀(Rosetta Sherwood Hall) 선교사는 1889년 3월 펜실베이니아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듬해인 1890년 25살 젊은 나이에 미국 감리교 여성 해외선교회(WFMS)에 의해 한국 선교사로 파송됐다. 1년 후 내한한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와 1892년 한국에서 결혼해 아들 셔우드 홀을 낳았으나 남편이 갑자기 전염병에 걸려 1년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남편 사망 당시 배 속에 있던 딸마저 3살 어린 나이에 풍토병으로 잃는 크나큰 불행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도 무려 43년 동안 의사로서 한국의 가난한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환자를 돌보는 선교사역에 집중했다.

그녀가 이 땅에서 의료선교사로 활동하며 남긴 신앙 유산이 하나둘이 아니다. 남편 모교회의 후원금으로 평양에 광성학교를 설립하였고, 여성병원인 광혜여원을 세웠다. 광혜여원은 당시 로제타 선교사를 박해하던 평안감사가 자기 부인의 병을 치료해 준 감사의 표시로 헌납한 건물에 세워졌다고 한다. 로제타 선교사가 광혜여원에서 한 사역 중에 특히 주목되는 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헌신이다. 1898년 이곳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이 처음으로 시작됐고, 후일 평양 맹인학교로 발전하게 됐다. 시각장애인 교육을 위해 로제타 선교사가 직접 개발한 '점자법'은 한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닌다.

로제타 선교사가 남긴 훌륭한 신앙 유산은 그녀의 주 선교 사역지였던 평양에 산적해 있으나 남북이 분단된 뒤 북한 당국에 의해 파괴되거나 모든 흔적이 지워졌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평양에서 20년간의 선교활동을 접고 1917년에 서울로 임지를 옮기게 되면서 서울과 인천 등지에 그녀가 남긴 수많은 의료 업적이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은 꺾이나 다행스럽다.

그녀가 서울에 와 첫 번째 한 일이 현 이화여대 부속병원의 전신인 동대문 부인병원 사역과 여성 의료인 양성을 위한 여자 의학반 개설이

다. 이어 1921년 동대문 부인병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제물포 부인병원(현 인천기독병원)을 세웠다. 그 후 조선 여자의학 강습소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이것이 1928년 경성 여자의학 전문학원으로 이어졌는데 지금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로제타 홀 선교사는 1933년 68세 나이로 선교사에서 물러나며 한국 땅을 떠났다. 미국에서 1951년 86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녀의 시신은 유언대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양화진 남편 곁에 합장됐다. 지금 양화진 외국인묘역엔 딸 에디스와 어머니에 이어 평생을 한국에서 의사로 헌신하다 91세에 세상을 떠난 아들 셔우드 홀, 며느리 매리언 홀까지 다섯 명의 가족이 잠들어 있다.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한 또 한 사람의 독실한 크리스천 의사는 고 박상은 안양샘병원 미션원장이다. 박 원장은

지난해 11월 5일 베트남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 갑자기 세상을 떠나 한국교회에 큰 슬픔을 안긴 인물이다.

고 박 원장은 고려대 의대를 졸업하고 가난한 환자를 돌보는 일에 평생을 바친 장기려 박사의 제자로 수련의 생활을 했으며, 스승의 가르침대로 의료취약 계층들을 돌보며 가난한 이웃과 함께 하는 의사의 삶을 살았다. 2000년에 안양샘병원 원장에 부임해 병원 설립자인 이상택 박사와 함께 안양샘병원을 선교 지향 병원으로 탈바꿈시킨 건 한국교회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는 샘글로벌봉사단을 설립해 매년 취약계층 1,000여 명에게 무료 주말 진료를 실시하는 등 약자를 도왔으며, 사단법인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설립해 아프리카 극빈 지역에서 에이즈 예방사업과 영양강화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고 장기려 박사의 뜻을 기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설립에 참여하고, 2014년부터 3년 동안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대표적인 의료선교 리더로 손꼽힌다.

의사로서의 박 원장의 삶을 말할 때 꼭 언급되는 세 단어가 '생명 사랑 존중'이다. 모든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만 그만큼 생명 사랑의 가치를 치열하게 세상에 실천한 의사도 드물 것이다. 낙태 반대 운동에 앞장서며 기독교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 점은 한국교회가 반드시 기억하고 귀중한 업적으로 기록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 곁을 떠난 두 분의 진정한 의사를 생각할 때 지금의 의료 공백사태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한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외면하는 의사, 그런 의사를 압박하는 데 치중하는 정부가 벌이는 대결구도를 보면 환자들의 존재는 아예 잊은 듯하다.

**로제타 홀 선교사, 광성학교, 광혜여원, 여자 의학반, 고려대의대 전신 설립, 점자법 개발 박상은 안양샘병원 원장, 취약계층 무료 진료**

### 진유철 칼럼

## 하나님 일하심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어렵고 힘든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인생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회개 하라 천국(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heaven)이 가까웠느니라”(마4:17)였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일을 하기 위해 먼저 방법과 제도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가를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 낚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신 사람은 배경이나 학벌 등 외적인 조건과는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함께 일하는 형제를 부르신 것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4:19)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뛰어나고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되게 하

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완벽해야 쓰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다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굳이 자격이 있다면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삶에서 머뭇머뭇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진형 교수는 한국 여성 최초로 스텐포드 대학의 종신교수가 되었는데, 자기 실력보다 시험을 잘 보는 이유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교수는 어떤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먼저 문제집부터 푼다고 합니다. 비록 잘 몰라서 많이 틀리긴 하지만 문제를 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반복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것을 꼭 알아야 할 것인지 전체적인 흐름이나 중요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먼저 인생의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지금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든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자녀의 문제, 건강이나 물질의 문제, 관계나 이민생활과 신앙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한 걸음씩 전진하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도 사람을 찾으셔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문제들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였다고 간증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살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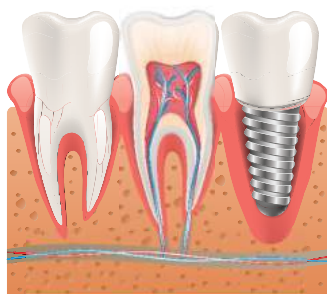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리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하고 회복

###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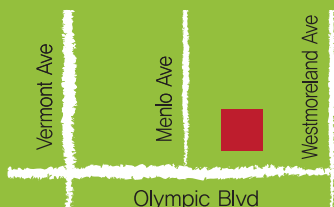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리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성경 통독으로 하나되는 공동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오디오 성경**

# “단 30분의 녹음으로, 담임목사님의 오디오 성경을 만들어 보세요”

담임목사님 음성으로  
전교인 성경통독 가능



**60DAY 신약통독**  
김은호  
2022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며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김은호 목사와 함께 60일 신약듣기

오디오 성경을 제작하시면  
교회별 맞춤 성경통독, 성경듣기표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전교인 통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호응 속에  
성경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0일 성경통독  
선한목자교회



90일 성경통독  
은누리교회



100일 신약통독  
중앙성결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  
지구촌교회

## AI 오디오 성경 특별 프로모션

**프리미엄 패키지 : 교회(담임목사)**

**\$6,600 ▶ \$5,500**

- 오디오 성경 음원(wav,mp3), 고급 USB 패키지
- 바이블리 앱 업로드 \$교인 무료 이용
- 교회 맞춤형 바이블리 통독 서비스(음원편집 & 배너광고)
  - 성경 66권 기준(권당 \$83)
  - 출석 교인 **300명 이하 : \$3,500(권당 약 \$53)**

**\* 담임목사 + 원로목사 패키지**  
- \$5,000 (담임목회자) + \$3,000 (원로목회자)  
- 교인의 데이터로 제작 시 별도 논의 필요

**베이직 : 개인(일반성도 및 부목회자)**

**\$3,300 ▶ \$2,500**

단 한번의 녹음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가족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 오디오 성경 음원(wav, mp3) 제공
  - 바이블리 앱 개인 성경 업로드(향후 예정)
  - 성경 66권 기준 권당(약 \$35)

개인 오디오 성경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세요

기독교일보

www.chdaily.com  
T:(213)739-0403 chdailya@gmail.com  
3055 Wilshire Blvd, Suite 480, LA, CA 90010





기쁨으로 읽는  : 마태복음, 제2차 도기 (13)

# 팔복: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핍박 받는 자



김영길 목사  
TMF(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의 대표

여섯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청결하다는 말은 깨끗하여 흠잡을 데가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청결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완벽주의의 덫에 걸릴 때가 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의 흠을 잡는 데 전문가들이 되어간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발견한다고 우리가 청결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고 처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청결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청결하게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으리라”고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더러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여섯 번째 복도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나로 인하여’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일곱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5:9).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려다가 낭패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가? 싸움을 말리려다가 오히려 말려들어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가?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다툼에 절대로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해본 적이 있는가? 아무도 자기 힘으로 세상을 화평케 할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서로를 화평케 하신다. 그는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엡 2:13-18).

온 세상이 다툼 가운데 있다. 그 다툼의 한 복판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화평케 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

야한다. 그분에게만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축복에도 예수님이 절대 필요하다.

여덟째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5:10-12).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당하는 불이익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멸시와 천대다.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사람은 핍박을 당하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

예수님 없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열린다. 예수님 없이는 ‘팔복’도 복이 될 수 없다. 그 팔복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비로소 우리에게 복이 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

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5:13-16).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이나 이름을 불러 모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독점적(exclusively)으로 주신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독점권을 포기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권리, 즉 상속권과 축복권을 스스로 포기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고 하지 않는다. 주마간산(走馬看山) 격으로 지나간다. 왜 그럴까?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소금과 빛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심코 지나치는 이유가 두 가지 더 있다. 하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죄책감 때문이요 다른 하나는 실천이 불가능하다는 선입주견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읽고 생각해보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다. 아무도자력(自力)으로 소금과 빛이 될 수 없다. 제자들도 사회의 소금이 되거나 빛이 될 만한 인물들이 아니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주셨다. 그것은 재창조의 역사였다. 거듭남의 역사이며 존재적인 변화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들이 소금과 빛으로 변화되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제자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 김한요 칼럼

### 영국이라는 나라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LA에서 10시간 비행해서 도착한 나라, 영국은 미국에 비해 작은 섬나라입니다.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집회가 있던 워블턴과 센트럴 다운타운을 오가면서 넓은 길은 거의 볼 수 없었고,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4월인데도 날씨는 추웠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았습니다. ‘이래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러 바다로 나갔나?’ 싶을 정도였고, 따뜻한 캘리포니아 날씨가 그리웠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숨 쉬고 있는 나라에 와서 책에서 보던 곳을 친히 목격하면서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조지 물러(1805-1898)가 고아들을 위해 브리스톨(Bristol)에 시작한 보딩스쿨도 엄청납니다. 흔히 고아원(orphan house)이라고 알고 있지만, 기숙사가 있는 크리스천 보딩 스쿨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당시 최고의 설계사를 통해서 한 건물에 400명에서 500명 수용하는 견고하고 실용적인 건물을 5개까지 지으면서 큰 캠퍼스를 이루고, 그의 평생 10,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먹이고 재우면서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영국의 소망을 이어가며, 미래를 위한 일꾼으로 키워 가는 일은 지금도 중단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엄청난 일을 조지 물러는 기도로 이루었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은 한국의 평양 대부흥의 도화선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목회하던 토마스 목사님은 37년간(1847-1884), 하노버 교회를 목회하면서, 둘째 아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를 안수하여 중국으로 파송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임신한 아내를 질병으로 잃어버린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를 파송한 런던 선교회에 사표를 내고 중국에서 통역관으로 지내다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당시 쇄국정책으로 문을 굳게 닫아 건 한국 선교를 위해 토마스 선교사는 런던 선교회에서 재가입을 신청하고, 백령도에 들어 가게 됩니다. 나중 27세의 나이에 제너럴서먼호를 타고 재차 한국에 들어 갔지만, 결국 성경책만 나누어 주고 순교

한 것입니다. 한편 허무한 죽음을 살고, 안타깝기 그지 없지만, 한국에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 토마스 목사와 그의 가족, 그리고 하노버 교회가 얼마나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에 순교한 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공식적인 첫 선교사로 1885년 부활절에 한국에 들어 오기까지 거의 20년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는 한해 전까지 목회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 기도는 결코 헛된 기도가 아닌, 응답으로 찾아와 20년 만에 한국 선교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 빛을 어떻게 갈아야 할까요? 바로 지금 하노버교회의 담임목사가 한인 목사님이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복수극에 찬사와 영광을 올 려드립니다.



### 2024 SPECIAL PROMOTION

## 개척교회를 위한 스페셜 프로모션

개척교회의 칼라복사기 비용을 40~60% 절약할 수 있는 기회!

2024년 개척교회를 위한 칼라복사기 스페셜 프로모션이 완성되었습니다. 10년미만된 개척교회를 위한 프로모션입니다. 기존교회들은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선택한 복사기의 옵션, 모델, 사용량, 렌탈 기간에 따라서 Special discounted price가 결정되며 교회들의 렌탈가격은 모두가 다릅니다.

텍스트로 본인의 성함과 교회명을 남겨주세요. 전화드리고 간단 명료한 견적을 드리겠습니다.

213 705 7778(KOR)  
TEL: 213 999 7995(ENG)  
213 663 8970(ENG)  
greenmwild@gmail.com

### GREEN M.WILD IMAGESYSTEMS

본사는 기독일보 공식 후원업체입니다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호그 병원  
Hoag Hospital

애너하임 리저널 병원  
Anaheim Regional Medical Center

세인트 주드 병원  
ST. Jude Medical Center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  
Cedars-Sinai Medical Center

UCLA 병원  
UCLA Medical Center

세인트 조셉 병원  
ST. Joseph Medical Center

할리우드 차병원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

U.S. 최고의 대형병원들과 함께합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파묘>는 오컬트? 반일? (2)

# <파묘> 흥행으로 보는 주술 환호 문화, 병드는 종교성



무속과 풍수지리를 추종하는 이들 사이의 주술 대결을 소재로 삼는 영화, <파묘>.

**감염 주술 시작 모방 주술로 끝내, 주술 상업화, 세계적인 현상 서구 뱀파이어, 마녀 전설 상업화, 기독교 영향 받아 저급 취급 세련된 연출, 종교 퇴락 부추겨, 고등 종교 약화 혹은 퇴락 시사**

### ◆주술의 종류: 모방 주술과 감염 주술에 담긴 종교적 염원

영국 민속학자 제임스 프레이저는 유럽의 고대 원시종교들을 연구하면서 주술의 종류를 크게 두 종류로 분류했다. 첫째는 모방 주술로, 인간의 힘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특정 현상을 다양한 장치를 동원해 모방해 그 현상을 재현하거나 막으려는 행위이다. 가장 단적인 예로 기우제를 할 때 하늘로 물을 뿌리거나 물이 담긴 병을 처마 끝에 거꾸로 매는 등의 행태를 지목할 수 있다.

둘째는 감염 주술로, 특정한 사람과 한 번 접촉한 적 있는 물건을 구한 다음 이 물건을 가지고 주술을 걸어 멀리서도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 혹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행위이다. 단적으로 조선조 숙종 때 희빈 장 씨가 중전인 인현왕후를 저주하려 감행한 염매를 지목할 수 있다. 염매란 특정한 머리카락이나 옷자락 등을 구해와 인형이나 그림에 붙인 다음 거기에 악귀를 불러들여 저주를 받은 자가 병에 걸리게 하려는 의도를 담은 주술이다.

영화 <파묘>에 등장하는 파묘 행위는 감염 주술의 대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나 조상의 시신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살아있는 후세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주술적 믿음이 풍수설과 합쳐져 탄생한 것이 파묘와 이장 행위이다. 한국 중장년층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이 이 파묘와 이장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이병철 삼성 창업주 등 한국 많은 고위 정·재계 인사들이 큰 일을 앞두고 부모의 묘를 파묘하거나 이장

한 적이 있다. 지금도 일부 국회의원 후보나 대통령 후보들이 정치권력을 얻기 위해 파묘와 이장을 감행하고 있다. 덩으로 선거나 투자를 앞두고 '유한' 무속인을 찾아 점을 보는 것을 일종의 통과리례처럼 여긴다.

반면 <파묘>에 등장하는 쇠말뚫은 일종의 모방 주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반도라는 지역 전체를 하나의 생물체로 보고 그 혈맥에 쫓는 침을 모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침술은 이롭게 사용하면 혈류와 신경을 자극해 장기와 근육의 회복을 돕지만, 악용하면 특정 신체 부위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마비시킬 수 있다. 영화에서 일본 전국시대 무장의 시체와 일본도가 민족 정기를 끊는 쇠말뚫으로 사용된 것 역시 모방 주술 성격을 갖는다. 일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내전이었던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죽은 다이묘의 시체를 가져와 한국에 심는다는 것은 곧 일본에서 벌어졌던 전쟁의 참상을 한반도에 재현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

이처럼 감염 주술로 시작해 모방 주술로 끝맺는 영화 <파묘>는 오컬트 소재에 대한 흥미와 민족주의에 근간을 둔 반일 감정을 자극하며 전만 관객 돌파를 가시권에 둘 정도로 성공적인 흥행성적을 거두고 있다.

서구에서 뱀파이어나 좀비 소재 콘텐츠 혹은 마법을 주된 소재로 삼는 오컬트나 판타지 콘텐츠가 크게 흥행하는 것처럼, 한국 영화계도 <곡성>을 필두로 나름 흥행력을 가진 사머니즘 기반 콘텐츠를 점점 적극적으로 제작, 발굴해가는 상황으로 보인다.

### ◆주술의 목적: 주술, 초자연적 힘에 대한 편협한 탐욕

주술을 완전히 미신으로만 취급할 수는 없다. 한국 사머니즘도 작두타기나 점술처럼 나름의 초자연적 능력을 선보이며 사람들을 매혹하고, 해외에도 각 나라마다 고유한 형태의 주술사들이 있어 실제로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거나 점술을 행하기도 한다. 특히 아프리카 저개발국들에서는 과학적 의료체계가 뿌리내리지 못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술사에게 운명을 내맡기고 있다. 그러나 주술의 효력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주술을 행하는 이의 현상 해석 또한 워낙 제각각이고 자의적이라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 주술은 인류 보편적으로 유익한 삶의 지혜와 윤리식을 함양하기보다 특정 인물 혹은 집단만의 욕망을 추구하는데 주로 활용된다. 이 편협한 탐욕이라는 특성은 주술이 보편화되지 못하고 고등종교의 영역으로 넘어갈수록 쇠퇴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영화 <파묘>는 주술의 이 배타적이고 탐욕적인 특성을 은폐하고 미화해, 우리 전통 주술을 마치 민족의 고유한 도덕률과 선의지를 이행하는 방편처럼 묘사하고 있다. 한국의 파묘나 일본의 쇠말뚫 모두 따지고 보면 특정 가문 혹은 집단의 세속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데도 이 영화는 마치 한국의 무속과 풍수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흥이인간 사상을 받드는 것처럼 치장하고, 일본의 음양도(陰陽道)는 침략·파괴·압제 욕망을 실현시키는 방편처럼 묘사하고 있다. 심지어 일제의 쇠말뚫 전설은 실제 역사적 신빙성조차 없음에도, 마치 확실한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만약 일제 쇠말뚫이 실제 영화에서 보여준 것 같은 악영향을 미친다면, 해방 후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된 군사시설, 그리고 경치 좋은 곳마다 벌어진 부동산 개발은 나라를 몇 번은 무너뜨리는 망국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말석이나 마 선전국 지위를 획득했고, 전 세계에 꽤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할 만큼 성세를 누리고 있다.

영화 <파묘>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주술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행태는 한 문명의 정신적 후진성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문명은 종교적 측면에서 참담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 한국에는 사머니즘, 중국과 대만에는 도교적 미신, 그리고 일본에는 신도 정령신앙 영향이 강하게 남아 올바른 종교성을 함양하는 데 결정적 장애물이 되고 있다.

사실 대중문화 콘텐츠를 통한 자국 주술 문화의 상업화와 미화는 비단 한국만의 현

상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은 서양 각국과 중국, 일본에 비해 이러한 현상이 훨씬 늦게 나타난 편이다. 이는 한국 대중문화계의 역량이 비로소 자국 주술 문화를 매력적으로 포장해 상업화할 만큼 성장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서구권, 특히 영미권은 이미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들어 <페니 드레드풀> 같은 매체를 통해 뱀파이어, 늑대인간 등의 전설과 마녀 전설을 상업화했다. 동아시아 각국 대중문화계에서 전통 주술이 막강한 흥행력을 가진 소재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동아시아 전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홍콩 영화계는 강사와 요괴, 도사 관련 영화들을 흥행시켰고, 일본은 1990년대와 2000년대 <링>과 <주온> 시리즈로 대표되는 현대화된 정령신앙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한국은 2000년대와 2010년대 들어 K-컬처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비로소 <기담>, <곡성> 같은 작품을 통해 전통 사머니즘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알리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성은 각 나라가 자국 주술을 마치



영화 <파묘>는 오컬트적 소재에 대한 흥미와 민족주의에 근간을 둔 반일감정을 자극하며 전만 관객 돌파를 가시권에 둘 정도로 성공적인 흥행성적을 거두고 있다.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처럼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영화 <파묘>는 상당히 세련된 연출력까지 힘입으면서 우리 사회 내부의 종교문화 퇴락을 부추기고 있다. 주술이라는 전근대적 행태를 미화하는 데 쓰기에는 아까울 정도의 연출력이다. 주술에 열광하는 제작자들과 관객들,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마음에 품은 종교성이 점점 더 배타적인 탐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기울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준다.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투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아로마 5층 이벤트홀**  
**교회 렌트로** 이용하실분을 찾습니다

- 주일 오전 예매가능(점심식사 시간가능)
- 주방사용 가능
- 크기는 2800sq.
- 의자만 놓으면 200~300명, 테이블과 의자 놓으면 150명 가능
- 월 렌트비 : \$4,000
- 파킹은 나갈 때 \$3 내야 합니다.
- 주소:3680 Wilshire Blvd. 5층, LA, CA 90010

**문의:(323)799-7909**  
(전화 통화가 안 될 경우 메시지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한국교회, 하나님 사용하실 '제2의 이승만' 길러내자

## [월간 지저스아미 2024년 4월호 발간사] 런(Run)일성·권(Gun)승만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관람자 수가 120만 명에 육박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재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이승만에 대한 거짓된 내용들을 바로잡는 것이다.

“서울 시민들을 버리고 대통령이 저 혼자 살기 위해 먼저 도망갔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라”는 방송을 하여 피난 가지 않은 서울 시민들이 공산군에게 당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말들이 만들어져 이승만을 공격해 왔고, 인터넷 보급과 함께 ‘런승만’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 ‘런’은 영어 ‘run’(도망치다)에서 따온 말이다. 어디서 이런 말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을까? 그들이 주장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1950년 6월 27일 대국민 라디오 연설 녹취록 중에는 대통령 본인이 서울을 지키겠다는 말도 없고, 국민들에게 서울을 떠나지 말란 말을 한 적도 없다. 그러면 누가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서 유포시켰는지 김포시 김오동 건국대통령을 욕보이는 것일까?



1953년 8월 8일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상호방위조약 기(假)조인식에 참관, 미국 측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이승만 전 대통령의 대국민 라디오 연설 전문 중(1950년 6월 27일 밤 10시) 지금, 우리의 원수들은 사방에서 중무장한 비행기와 탱크 그리고 군함을 몰고 와서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

무기도 없이 적과 대적하기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인들은 맨손으로 용감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적군의 선봉대는 서울 외곽 수십 리 지점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한국의 리는 약 400미터 거리). 이런 상황을 보고 나는 워싱턴과 동경에 밤과 이른 새벽 시간에 전보와 전화로 연락을 취해 맥아더 장군과 통화를 했고, (워싱턴 주재 우리 대사를 통해) 트루먼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내가 말한 바는 적이 우리 대문을 침입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

(현재 상황에서 국민이 피난을

떠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유력한 나라들도 이미 공산당 세력 수중에 넘어갔고, 일부는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

여기서 (서쪽 울진반도부터 동해까지 38선 전 지역 그리고 동해의 해안선을 따라 내려가는 지역까지 적과 힘차게 싸우고 있는 우리 군과 경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의정부 지역에서) 무기도 없이 용감히 싸우는 군인들에게는 더욱 고맙습니다.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용기, 힘, 결단력을 가지고 있음을 세계에 보여주어야만 우리는 그들로부터 지원을 기대하고, 남북한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나는 모든 시민들이 전쟁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용기와 애국심을 발휘하여 차분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출처: 2024.3.24. 뉴데일리 「6.25 직후 '이승만 라디오 연설문' 보니... "서울을 지켜라"는 말 없어」 ※본문 중 괄호()는 영어로 번역된 미군의 감청문에 들어있는 것임. 반면 6.25 당시 30대 후반이었던 김일성은 한국군이 1950년 10월 1일 38선을 통과하여 북진을 시작하자, 압록강 너머 중국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도망갔다. '런(run)승만'이 아니라 '런(run)일성'인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왜 젊은 김일성이 중국으로 도망간 것

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것일까? 매우 수상하게 생각된다.

허위 조작된 사실로 런승만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세력들 가운데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도망간 젊은 런일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들이 있는가. 허위 조작된 수많은 거짓이 이 나라의 건국사를 도배시켰다면, 이제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되었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당시 75세의 고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낙동강 방어선이 흔들리는 위험한 순간에도 끝까지 한국 땅에 남아 있었다. 1950년 8월 중순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기 직전, 대구에까지 공산군 폭격이 확대되자 미국 무초 대사가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 제주도로 피신하라고 하였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무초 대사 앞에서 권총을 뽑아 들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단호하게 “나는 한 발짝도 더 물러설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는 권총을 뽑아 들고 “공산군들이 내 관저에 침입하면 권총으로 먼저 프란체스카를 쏘고, 적군을 쏘고, 마지막 남은 한 발은 나에게 쏘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무초 대사는 너무 당황해서 황급하게 대통령 임시관저를 빠져나갔다고 한다.

1950년 8월 14일, 대구가 적의 82mm 박격포 7발 포격의 피해를 받아 무초 대사는 이승만 대통령께

정부를 제주도로 옮길 것을 건의, 이승만 대통령, 모젤 권총을 꺼내 들면서 “이 총으로 공산당이 내 앞까지 왔을 때 내 처(프란체스카)를 쏘고, 적을 죽이고, 나머지 한 발로 나를 쏘 것이요. 우리는 정부를 한반도 밖으로 옮길 생각이 없소. 모두 총질기하여 싸울 것이요. 결코 도망가지 않겠소.”

(출처: 6.25와 이승만, 프란체스카의 6.25 전쟁 비망록, 기파랑 출판사, 98쪽)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동안 290여 차례 전투 현장을 방문하여 장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요즘은 환갑잔치를 하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오래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 이전만 해도 만 60세가 되면 환갑잔치를 많이 하였다. 조선 말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40세가 채 안 됐고, 1950년만 해도 한국 남성 평균 수명이 50세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전쟁 3년 동안 75-78세였던 노(老) 대통령이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를 찾아다니며 군인들을 직접 격려하는 전사(戰時) 연설만 279회 이상 했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전쟁을 이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김명성·김민식, 『전쟁과 연설: 6·25 전쟁 시기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2022 봄호). 이승만에 대해서는 밝혀야 할 진실이 너무 많다. 그중에서도 ‘런승만’이란 거짓말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면 안 된다. 대신 중국까지 도망간 김일성을 가리켜 ‘런일성’이라고 말해야 한다.

거짓된 역사를 가르치니 ‘헬조선’이란 말이 나오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말이 나온다. 말 전쟁에서 지면 나라가 망한다. 거짓과 허위가 이 나라를 장악하고 학교에서조차 거짓이 가르쳐지지 않도록 우리는 값을 치를지라도 진리와 진실을 외쳐야 한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잠 11:11)”. 이제 앞으로 우리는 ‘런

(run)일성 권(gun)승만’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악인들의 입에서 나온 낱조와 거짓으로 망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나에게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공적을 폄오라고 한다면, 첫째는 극심한 혼란과 반대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다. 해방 후 남한에 공산주의자들인 남로당원이 30만 명이 넘었고, 김일성이 북한 강동정치학원에서 훈련시켜 남파한 유격대원들과 간첩들이 남한 땅에서 활개를 쳤으며, 남로당 위조지폐 사건과 대구폭동 등으로 남한은 큰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해방 당시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80% 정도로 국민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미혹되기 쉬웠다. 그런 상황에서 남로당원들은 소작인들에게 땅을 공짜로 준다는 소문을 내서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지지하게끔 선전·선동을 하였다. 1946년 여름 미군정 여론조사 결과 당시 한국인들은 자본주의의 13%, 공산주의의 10%, 사회주의의 70%를 지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이승만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북한 공산당과 남로당원들의 극심한 반대와 선전·선동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였다. 그래서 온 국민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특별히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며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반면 북한도 허울 좋게 ‘인민민주주의’라고 헌법에 기재했지만, 예수 믿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자유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기독교를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둘째, 6·25 전쟁 때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지켜냈다. 소련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이 합작해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 일으킨 6·25전쟁은 현실적으로 남한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 그러나 이승만의 외교적 능력과 애국심은 탁월했다.

(다음호에 계속)

龍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 이사의 명가(名家)  | 가주 삼성 통운(주)   |
|---|---|
| <p><b>귀국이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li> <li>- 포장 재료 무료 제공</li> <li>-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국자동차 운송</li> <li>-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li> <li>-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li> </ul>   |
| <p><b>시내이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li> <li>-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li> <li>- 포장 box 대여 및 판매</li> <li>- 사무실, 공장 이사</li> <li>- 창고 보관 가능</li> </ul> | <p><b>타주이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li> <li>-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li> <li>-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li> <li>-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li> </ul> |
| <p><b>자동차운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li> <li>-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li> <li>- 초 저가 차량 운송</li> </ul>                                  | <p><b>해외이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와이, 괌, 알라스카</li> <li>- 중국, 일본, 남미</li> <li>- 캐나다(밴쿠버, 토론토)</li> <li>-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li> </ul>                                 |

☎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당신의 소중한 눈을 건강하게 지켜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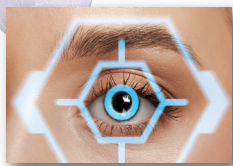


# KISEIDO EYE NOON EYE

믿음의 이름, 귀생당에서 만든 이시대 최고의 눈 건강 영양제!

좁아진 시야, 흐려진 시야로 고생하는 당신을 위한 최고의 눈 영양제!

[귀생당 아이 눈 아이]는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청정 열매인 마퀴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델피니딘,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을 함께 구성하여 현대인의 눈 건강의 최적화와 눈 건강에 더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나온 눈 영양제입니다.



망막색소 재활성화



시력기능 향상



야간시력 개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예방

하루에 2캡슐! 아이 눈 아이로 더 밝은 세상을 만나세요!

## 아이 눈 아이의 효능 효과

- 눈 기능 활성화, 눈 건강유지 및 보호
-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 폰, TV, 등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 개선
- 백내장, 녹내장, 근시 및 AMD(황반변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 활성산소 완화
- 혈류 개선, 미세혈관 순환증가
- 심혈관, 뇌혈관 순환 도움
- 알츠하이머, 치매, 집중력, 인지능력 향상
- 장내 효소 증가
- 소화기능 개선
- 빈혈, 간 기능 개선
- 면역체계 향상

주요성분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델피니딘, 프로안토시아닌, 피페린, 빌베리



1.800.909.0001

www.kiseidousa.com

These statements have not evaluated by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d disease.